

‘사랑 더하기 예·적금’
우리은행 경품 이벤트



우리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 더하기 적금’, ‘사랑 더하기 예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랑 더하기 적금’ 이벤트는 오는 6월30일까지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적금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440명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커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은 ‘스무살우리’, ‘시니어플러스우리’, ‘우리원(WON)모아’ 적금이다.

‘사랑 더하기 예금’ 이벤트는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예금에 가입한 고객 중 1060명을 추첨해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은 ‘월예금’, ‘모이던 금리가 올라가는 예금’, ‘우리원모아예금’이다.

각각 이벤트에 모두 참여하면 중복 당첨 기회가 제공된다. 이벤트는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와 우리원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taeyoung8317@meconomynews.com

“신협, 지역 벗어나 영업 가능” 개정안 특혜 논란

금융위·저축은행 “비과세는 포기해야” 반발
“혜택 몰아주면 금융 생태계 파괴 불보듯”
금융위원장 재고 요청에도 정무委 통과

신협의 영업지역을 광역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축은행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신협이 광역화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갖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표를 의식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조합의 설립·가입의 조건인 영업지역(공동유대)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구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은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제한으로 충분히 돈을 빌려줄 수 없어 고심하던 신협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 소득의 15.4%를 내야 한다. 반면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 3,000만원까지는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러한 조건에서 신협과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11일 취재진에게 “신협은 비과세 특혜 뿐만 아니

라 자금 조달에도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경쟁을 무조건 회피하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판을 깔아줘야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광역 영업권과 비과세 혜택을 신협에게 몰아준다면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 거래를 조정하고 업계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과세 혜택을 준 이유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협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같은 혜택을 저축은행에게도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슷한 제재를 받고 있는 농협·수협 등도 영업지역 확대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수신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직전 다급하게 발언 기회를 얻어 재고를 요청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영세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돼 지역기반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

서민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석했던 의원들 중 누구도 재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별개로 신협의 건전성을 문제삼았다. 무리하게 광역화를 추진하기보다 은행의 내실부터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협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62%p 증가한 2.75%였다.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대출의 비중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94%로 업계 평균치인 2.04%를 초과한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크고 관계당국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후 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의원 입장에서 비과세 혜택의 대상자가 늘어나면 지역구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 신협 측이 이번 개정안에 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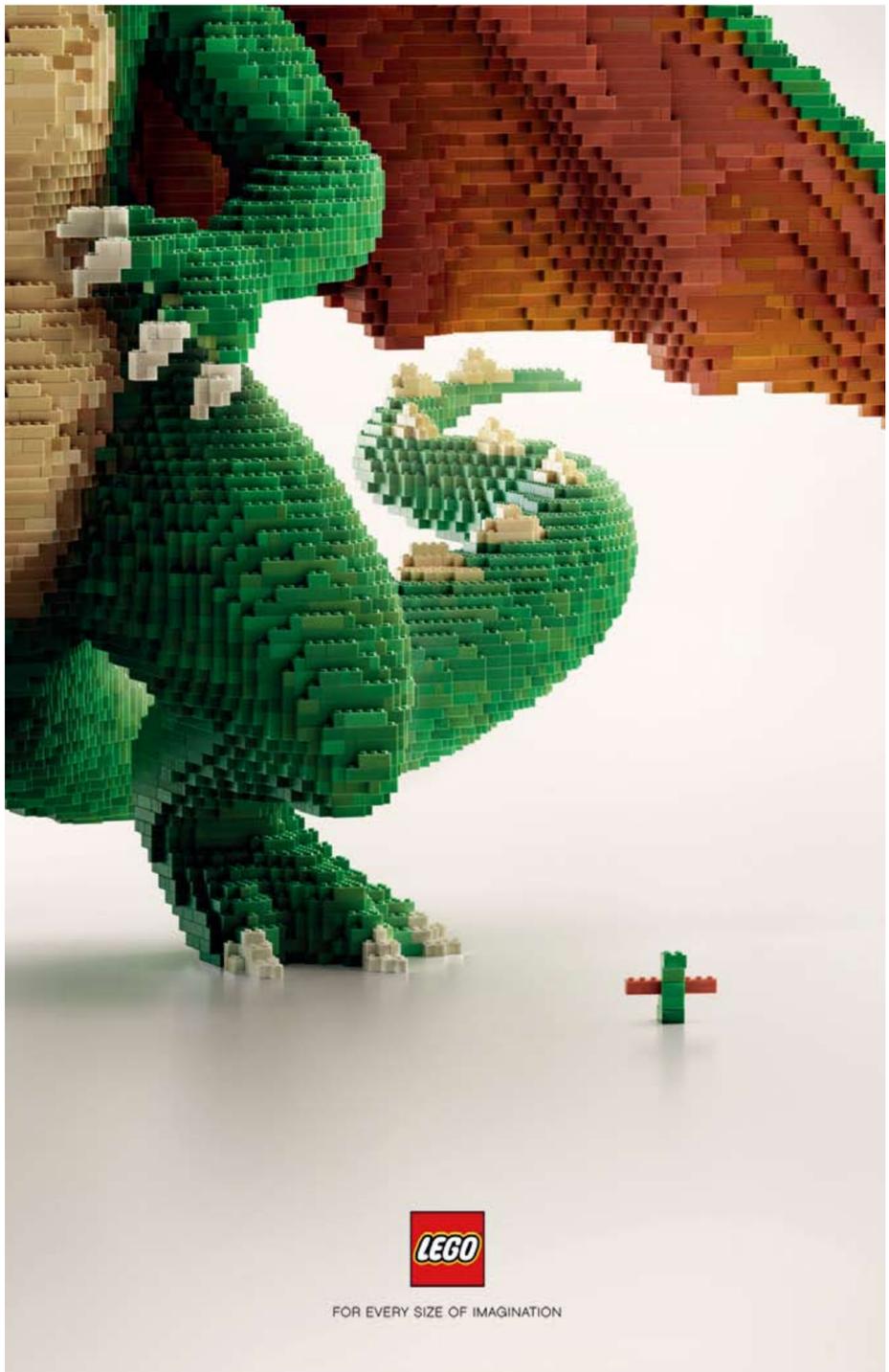
신협 측은 “해당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협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 신협에서 탈퇴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과의 마찰에 대해선 “신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영리를 추구하는 타 은행과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DRAGON 용
Client: DKSH (THAILAND) LIMITED
Agency: OGLVY GROUP THAILAND, Bangkok
Product: LEGO 레고

Copy: For every size of imagination 레고와 함께라면, 너무 큰것도 너무 작은것도 없습니다.

금융노사 임단협 관건은 ‘정년 연장’

노조 “정년 65세-임금피크 60세로”
“은퇴 시기 조정” vs “인건비 가중”

금융권 노사가 두 번째 협상테이블에 앉으며 올해 임단협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19일 2020년 산별중앙교섭 교섭대표단 2차 교섭회의를 진행한다.

올해 산별중앙교섭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함께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상건례 및 1차 교섭회의를 마쳤으며, 노조가 3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정년 연장이다. 은행원과 금융 공무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 시기를 6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요구했다.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남는 근로자에 대해 임피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임피제도 함께 늦춰

야 한다. 현재 임피제는 금융사별 55~57세가 되면 정년까지 해마다 연봉이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인 임금에 대해서는 3.3% 인상을 제시했으며, 사측은 아직 임금인상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금융 인공제회 설립, KPI 제도 개선에 따른 과당경쟁 해소 및 고용 안정, 경영 및 자율권 보장,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책임 실현,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등도 핵심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 임피제는 함께 묶어 논의해야 하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고 100세 시대로 진입한 사회 전반의 고령화를 고려해 은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는 인건비 문제가 따라붙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권은 다른 산업군보다 평균 임금 수준이 높고, 임피제 대상 임직원이 고임금 근로자라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노조는 19일 은행회관에서 2020년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내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산업 전체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위기 대응을 위해 인건비 줄이기에 나서는데 허리띠를 조이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사는 올 하반기에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건이 최종 합의되면 금융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내년부터 관련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단, 개별 노사 간 보충 협약 방식으로 세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윤희원 기자 keyoon@meconomynews.com

국책은행 상반기 공채 우리·신한銀 “수시만”

이태원궤 코로나 여파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융권 채용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금융권 채용 절차도 재개하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책은행들은 기존 계획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신입 행원 공개 채용 접수를 마쳤다. 기업은행은 서류 심사, 필기시험, 실기면접을 거쳐 7~8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타임 테이블(Time Table)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11일까지 약 15일간 지원 접수를 받은 기업은행은 오는 25

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6월 13일은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서울과 지역 4곳으로 장소를 분산했다. 19일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 합격자 인원은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약 4.5배수 내외다. 이후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총 25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손 소독제 배치와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응시자 수를 줄였다”며 “응시장소를 더 많이 늘리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도 50명을 선발하는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6월에 면접을 거쳐 7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 시험의 경우 서울 경기고를 빌려

시험을 치르고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나눠서 최대한 지원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시험장 내에서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개 채용을 하반기로 연기한 은행들도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을 미루고 수시채용만 진행하고 있다. 두 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350명, 300명을 공개 채용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디지털, 정보기술(IT), 투자은행(IB), 자금 등 4개 전문 영역에서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디지털·ICT와 기업금융 분야에서만 ‘핀 포인트(pin point)’ 방식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보통 하반기에 신입 행원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김태영 기자
taeyoung8317@meconomynews.com